

45장. 바룩에 대한 말씀

45장은 여호야김 4년의 이야기이고,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해에 주신 말씀이다(605년. 참조. 25, 36장). 두루마리에 심판의 말을 기록하는 바룩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남은 것을 뽑기도 한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서 '큰일' 곧 구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셨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 바룩의 말을 기록한 것은 예언자와 예언자의 말을 듣는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스스로 큰일을 경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에 자기를 의탁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

45장 익힘 문제

1.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와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은 언제입니까? (1절)
2. 1) 두루마리에 심판의 말을 기록하는 바룩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4절)
- 2) 그의 무엇을 지켜 줄 것이니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였습니까? (5절)